

문대통령 "윤석열은 文정부 검찰총장... 검찰개혁 갈등 다시 없을 것"



문재인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 입을 열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돼 송구스럽다"며 "갈등은 다시 없을 것

사회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란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결국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받아들여진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이란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관련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입장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만식기자

[칼럼]소셜 네트워크전성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최근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장의 모니터사진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서신이 가짜뉴스로 밝혀지면서 SNS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낸 언론사였다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가 되어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일이었다. 어떤 일인데 숙성된 과정 없이 급성장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지만 이미 진작부터 예견된 일들이었고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 이제 는 신체의 일부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스마트폰 폰은 통신수단의범위를 넘어 현대사회의 가장 상층부에서 모든 생활을 통제하며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갑으로 판단될지 모르지만 이미 울이 되고도 남을 상황에 부착해 있다.한국처럼 국토 전역에 통신망이 깔려 어디든 폰 하나만 들면 모든 업무나 쇼핑은 물론 정보취득이 가능한 환경에서 첨단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한껏 누릴 수 있으니 더 말해 뭐하랴. 문제는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동반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2백년 남짓한 미국이 휘둘리는 것이나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일본의 경제 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떤 것이든 목구멍에 넘기기 전에 입에 물어보고 삼켜야한다. 특히 문명의 발달, 종교, 의회정치, 군사, 문화, 예절, 등 우리민족에 맞는 옷을 입으려한 체형이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리저리 맞춰보고 선택해야 함에도 백의민족이 얼룩덜룩한 무늬와 발거벗은 거나 진배없는 의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풀어보자면 스마트폰 폰을 통한 SNS의 전변화대에 앞서 관련 법안을 보다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판을 칠 수 있었을까.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하고 자칫 방종이나 범죄로 확산될 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신사회의 앞잡이가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손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오니 대안 없이 맞이한 지배자가 된 것이다. 가령 기독교의 부패 또한 종교 고유의 기능을 넘어 정치화, 기업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하락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출출 새는 국방비도 호국의지를 가진 진정한 군인보다 못해 먹는 자만 바보 되는 국방비리의 나눠먹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문화 예술 스포츠 또한 작가가 선수보다는 몸짓만 살찌운 조직의 밤그릇 싸움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의 원인인 것이다.

발상일수도 있으나 손녀 뺨 여고생이 할아버지뺨 노인 앞에 담배를 피우물어도 못 본체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으며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변화라는 명분으로 가상전의 한 법안을 만들어 후손들이 망가지지 말긴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문제다. 필자도 애완견 견주로서 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어제는 모 후보가 애견병원을 공약한 바 있다. 얼마나 후하는 제안인가. 일단 표만 된다면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는 대안 보다는 당선에 욕심이다. 어느 선거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상대국의 의견도 없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기주의, 말이 좋아 함께 사는 사회지 남아야 죽든 말든 과도한 경쟁구도는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렸고 이 또한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폐단이다. 오늘 뉴스에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백의민족이 얼룩덜룩한 무늬와 발거벗은 거나 진배없는 의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풀어보자면 스마트폰 폰을 통한 SNS의 전변화대에 앞서 관련 법안을 보다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판을 칠 수 있었을까.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하고 자칫 방종이나 범죄로 확산될 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신사회의 앞잡이가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손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오니 대안 없이 맞이한 지배자가 된 것이다. 가령 기독교의 부패 또한 종교 고유의 기능을 넘어 정치화, 기업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하락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출출 새는 국방비도 호국의지를 가진 진정한 군인보다 못해 먹는 자만 바보 되는 국방비리의 나눠먹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문화 예술 스포츠 또한 작가가 선수보다는 몸짓만 살찌운 조직의 밤그릇 싸움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의 원인인 것이다.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의 도덕적 발전에는 여권신장과 정신적 어른이 전무한 환경이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 위아래가 아예 상실된 사회로 전락했다. 얼핏 보면 케케묵은 구시대적

덕암/김근석

경기도, 지역 성평등지수 2년 연속 중상위권 유지. 안전분야 성평등 지수 큰 상승

디지털성범죄 본격 대응 및 도정 전반 성주류화 정책 등으로 상승세 이어갈 전망

경기도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측정·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상위권인 레벨2 지역에 선정됐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그 전년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통상 매년 말 발표를 하는 데 올해는 발표가 늦어졌다.지역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사·문화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지역·중상위지역·중하위지역·하위지역 4단계로 나눠 발표한다.경기도는 2017년 하위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인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2019년 성평등지수는 2018년 76.8점

보다 0.6점 상승한 77.4점을 기록했다.2018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 중 5개 분야다.특히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5.5점 개선돼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 상승폭이 2.7점으로 가장 컸다.이 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사항인 육아휴직자 성비 및 위원회 위원 성비 개선 등 각종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가족분야' 및 '의사결정분야'도 각각 1.9점과 1.0점 상승했다.민선7기 경기도는 전통적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성 주류화를 위해서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 확보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8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는 '경제활동'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머물렀다.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기반 강화, 차별 없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조성 등 여성 경제활동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순남 경기도 여성가족장관은 "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2년 새 하위권에서 큰 폭으로 반등해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도 성평등지수를 상위권에 안착시키는 물론 도민들께서 보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 교통안전환경개선 6개사업 480억원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총 360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도민의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등에 2021년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80억원 중 국비는 24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국비 102억원 대비 무려 135%가 증액된 것이다.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시·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국비 5.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경북도가 2021년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6개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9개소 57억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11개소 3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9개소 48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 8억원 무

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708개소 31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개소 24억원 이다.특히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예산 360억원을 집중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단속장비, 신호기 설치 및 과속방지턱,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동업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교통안전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고원식 횡단보도 개선방안 제안

국도부와 세종경찰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보고서 전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세종경찰서를 방문해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손인수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를 저조한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고원식 횡단보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매뉴얼 등에 명시된 경사부 규격 기준이 상이한 데다 세종시의 경우 시정과 LH 등 사업 시행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균일하지 못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반복되면서 저상버스 노선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규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인수 의원은 "차량 주행 감속 효과와 차체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기준이 마련되면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감소와 더불어 저상버스 노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최재은/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논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권철승 국회의원 정명근 보좌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담당자들과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이은주 의원과 정명근 보좌관은 "병점 외곽에 위치한 진안 중학교를 이전해 통학 접근성을 개선해 인근 병점중학교, 안화중학교와 균등하게 학생을 배치하게 되면 진안중학교로 배치되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피해를 줄이게 되어 화성교육지원청의 매년 반복되던 중학교 입학 배정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에 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농동 지역의 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학교 신설 조건이 안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재배치 논의로 별달초등학교를 1초 부지로 이전을

함께 추진해 태안지구내 초·중학교 재배치를 통해 목은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공감했다. 이번 재배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있었던 학부모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61.28%의 찬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학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부침을 겪었는데, 2021년에는 학부모의 찬성률 60%로 하향기준이 됐다.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교육부에서 신설에 대한 부분은 난색을 표한 반면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경기도 교육청에 비추면서 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에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명회 개최 등으로 학부모들과 소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만식/기자

기획경제위원회 “새로운 충남형 미래전략 추진하라”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청취...소상공인 지원방안·미래사업 세부전략 마련 등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남만의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2021년 주요 도정목표 추진과제로 충남형 뉴딜 적극 추진,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등을 보고했다. 이공희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미국 바이든 정부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충남만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권역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예산 확보전략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의원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마련이 미약하다"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은 "내포신도시 완공의 해가 넘었음에도 도 중심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사리 얻어낸 혁신도시 지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방 위원은 또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인성과 체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정책에 꼭 반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도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갈 때"며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 도도와 교육청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도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승만 위원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특단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때"며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설치 중심이 되어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은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서른해가 지났지만 그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간 세율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양 수준인 인구문제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위는 이날 조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김원호/기자

권정선 의원, 부천 원미고 긴급 교육환경개선 논의

교사동 외부 바닥 파손 및 불균형 안전사고 위험, 전면 포장공사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1일 부천 원미고에서 긴급 교육환경개선 논의를 갖고 원미고 교사동 외부 바닥의 파손 및 불균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우천시 빗물고임에 따른 만성적 비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하석중 행정국장님과 김이두 시설과장이 배석했으며 김윤태 원미고 교장으로 부터 현안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후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1997년 개교한 부천 원미고는 31학급, 75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교사동 옆면과 후면 외부 바닥에 대한 부분별 잦은 보수로 인해 바닥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져 우천시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바닥 공사 시 사용된 아스콘 등의 깨짐현상으로 인해 늘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바닥 불균형에 따른 만성적인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 해충이 서식해 비위적인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불편과 학교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

보며 권 의원은 "기존 바닥재를 완전히 철거하고 고압 블럭 및 아스콘 등으로 전면 재시공해야만 만성적인 학생 불편 해소와 학교분위기도 활기차게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고 "학생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된 만큼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할 수 없어 도교육청 국장님과 과장님을 직접 현장으로 오시도록 했다"며 "긴급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석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장에서 보니 조속한 조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최우선적으로 긴급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원미고에서는 교사동 후면과 옆면 3,438㎡의 면적을 전면 포장공사 하고자 필요한 소요 예산 3억 2천만원을 긴급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한 상태이며 도교육청에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학교가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기간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빠르면 동계방학 중인 2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충남/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AAC존' 설치 촉구

326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보완대책의사소통 구역 필요성 역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완대책의사소통 구역, 일명 'AAC존' 설치를 주장했다.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말 대신 몸짓이나 사진,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의미한다. 조 의원은 21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내에 ACC존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 장애인은 도내 1만 1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AAC 활용현황을 보면 단속히 그림글자판을 활용한 시설 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역시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AAC 기기를 대여해주고 있

지만 학습보조기구로 활용될 뿐 일상생활에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AAC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거나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한 것임에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와 경기도 안산, 강원도 원주 등 AAC존 설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범위 역시 편의점과 병원, 은행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0만 도민 한 분도 불편할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AAC존 설치를 서둘러 달라"며 "알림표시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충남이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추민규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 조합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 광주, 하남의 3만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감사패는 최만식 의원과

추민규 의원이 수상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지역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내용들을 조례로 준비할 것이며 도민과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 정착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 최인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발행: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경 제 부: 내선 (114)		오 회 사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 포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강북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사무국 모집

청년 거버넌스 역량강화, 공론장 운영 등... 정책사업비, 인건비 사무국에 지원

서울 강북구가 '청년 참여기구' 운영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참여기구' 운영사무국은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최종 선정된 운영사무국은 청년 스스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제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을 열고 관심사에 바탕을 둔 정책의제별 모임활동도 뒷받침한다. 또 조직활동을 촉진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청년 생활·성장 학교'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청년지원사업의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이번 모집에 선발된 사무국에는 인건비와 정책 활동사업비가 주어진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독립된 공간이나 사무실이 없다면 천만원까지 임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사무국 선정 결과는 3월 29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차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역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만든 제안서를 서울시 에 제출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참여 자치구로 선정됐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생생한 생활밀착형 청년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바로 운영사무국 선정 단계다"며 "지역 내 역량 있는 청년 조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강북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청년 참여기구' 운영 사무국 모집

강북구에서는 청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참여기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을 모집합니다. 능력 있는 청년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1. 1. 18(화) ~ 2. 5(목)
- 모집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 정책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청년 참여기구 사무국 운영
 - 청년 정책 의제별 커뮤니티 운영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
 - 정책 공론장 운영
 - 강북 청년 생활·성장 학교 운영
- 사업내용** 사무국 인건비 지원(최대 7천만원), 청년 정책 활동 사업비 지원(최대 6천만원)
- 지원내용** 사무국 인건비 지원(최대 7천만원), 청년 정책 활동 사업비 지원(최대 6천만원)
- 사업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결과발표** 2021. 3. 29(일) 이후 개별 통보

신청방법 및 문의

-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새소식 및 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ysys@12@gangbuk.go.kr) 접수
- 강북구 일차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02-901-7253

남동구, 청년예술인 위한 '푸를나이 JOB CON' 4기 모집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온라인 환경 맞춘 새로운 방식 운영

인천시 남동구의 청년예술인 일자리사업 '푸를나이 JOB CON'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다음달 9일까지 지역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푸를나이 JOB CON' 4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푸를나이 JOB CON'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호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면 공연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선발될 4기는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비대면으로 가능한 예술 콘텐츠 제작해 지역사회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지원하고 온라인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참여대상은 다양한 예술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재능이나 공연활동에 재능을 보유한 만 19~39

세 남동구 거주 청년 미취업자로 다음달 9일까지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의 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분야와 공연기획, 음향엔지니어, 실용음악, 클래식, 그 외의 장르 뮤지션 등 공연에 관련한 분야이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주 5일 주40시간 근무로 근무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22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참여자 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비대면·온라인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제4기 푸를나이 JOB CON

청년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안정적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공익을 위한 포스트, 홍보영상, 포스터 제작 등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업

- 모집대상** 만 19세 - 39세 남동구 거주 청년 미취업자(청년예술인)
- 모집기간** 2021. 01. 25(화) ~ 02. 09(화)
- 접수기간** 2021. 02. 01(화) ~ 02. 09(화) 17시 마감
- 접수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행정실승인 중축동 3층)
- 사업기간** 2021. 03. 02 ~ 12. 31(약 10개월)
- 모집분야** [영상촬영,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웹디자인] [실용음악, 클래식, 뮤지컬(클라리넷), 연소, 국악 등 기타 장르] [영상기획, 연출, 음향 엔지니어 등]
- 주요내용** 모집공고 신청서류 면접심사 교육 활동
- 세부사항**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남동구청 홈페이지 > 전화 > 고시공고 문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22-453-6235

관악구, 만화로 보는 '재미있고 가치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 출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및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에 기여

관악구가 사회적경제를 소재로 한 만화책 '재미있고 가치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도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과제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개념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를 접근하기 쉬운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책은 만화책 형태로 제작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장은 버려지는 길고양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2장은 관악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는 만화 형태로 담았다. 구는 제작된 만화책을 21개 동 주민센터와 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복지관 등에 배포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가치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

세상 어디에도 마을이 없고 모든 마을에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재미있고 가치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출간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제작·배부

'급하니깐 잠깐' 안 돼요 꼭 양보해 주세요

인천 서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만1천 매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밀집지역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별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운 도안으로 제작된 안내문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의 종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형태 및 부과 과태료를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 얼마가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실효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급하고 잠깐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비워주세요!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용대상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된 차량

- 보통 운전용
- 보통차 운전용
- 보통차 국가유공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 신체장애 주차 10만원
- 보통차 불법주차 1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대안·회오·연소 행위 5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5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대안·회오·연소 행위 200만원

같은 건물에 장애인 설치 없어도,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외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약산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904, 4909)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유성훈 구청장,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현장방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점검 및 전통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월 21일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날 시흥1동에 위치한 현대시장과 대명시장을 방문해 구가 최근 설치한 화재알림시설을 점검했다. 구는 최근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현대시장과 대명시장 150여개 점포에 화재감지기 및 공용공간에 불꽃감지기 등 화재초기진압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화재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강동구, 3·1운동 기념 테마정원 본격 추진...실시설계안 도출

강동구 상일동 511 수변공원 일대 근·현대사의 역사적 명소로 조성

강동구가 상일동 511 수변공원 일대에 조성하는 '3·1운동 기념 테마정원의 실시설계안'이 나왔다. 구는 작년 6월 3·1운동 기념 활동,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기념 공원 조성으로 주민 이용률 제고와 함께 경관이 수려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변공원 경관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설계 기본지침에는 작년 11

월에 완료한 3·1운동 기념 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디자인 가이드를 반영하고 수변공원에 설치 가능한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공간을 구성·설계했다. 구는 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2월 중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올해 4월경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경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

이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그간 진행해온 용역을 반영해 디자인 설계안이 잘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장소성을 연계하고 경관 수준을 높여 수변공원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함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성동구, 건강한 방학생활을 위한 선택 '방학돌봄' 참여자 모으려

소규모로 안전수칙 준수하며 인권알기, 체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돌봄공백 최소화

서울 성동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방학학 자·에·체로 건강 성장'을 위한 방학 돌봄'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겨울방학부터 개설된 방학 돌봄은 올해 지식, 예술, 체육활동으로 구분해 인권알기, 체육활동,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해 총 16명의 장애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참여하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1:1로 지원하

며 운영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나 강사, 봉사자 모두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한 후 대 교육 때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데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Let's Paint! Spring Session

개방스에 그리는 온라인 영어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총 120명 (회차별 20명)

참여기간 2021. 2. 15(화)~17(수) 2. 22(화)~24(수) 총 1일 13:30~15:00. 원데이 클래스

신청방법 - 성동공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dglobal.modoo.co.kr) - 1. 20(수) 9시~1. 24(일) 주청 후 발표 ※ 수업 전 수강자 인원 키트 배부 문의 ☎ 02-2286-7831

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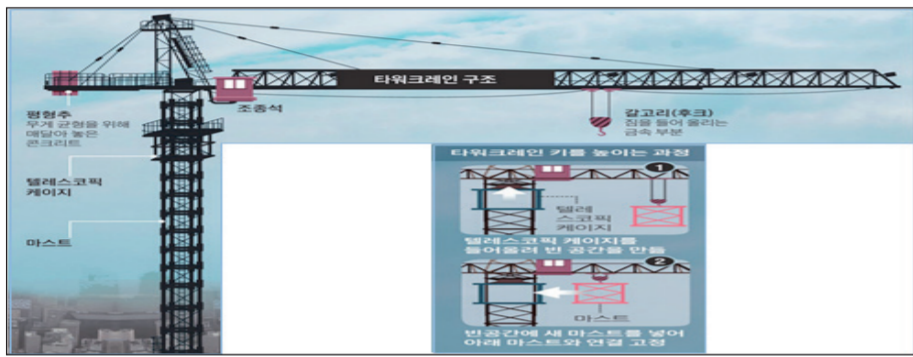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소규모 공사현장, 여러 대 설치현장 등 타워크레인 집중점검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상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99건을 적발했다.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개정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에 관련법 개정용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전담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총 790개소, 점검반 119명 운영

구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79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119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총 322개소의 노래연습장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54개조의 점검반을 약 2주간 구미 전 지역에 배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PC방 및 영화관은 5개반 11명의 인원이 468개의 영업장

을 수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완벽히 방지하고 유흥업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시행됐다.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추운 겨울, 모두가 어렵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전북도, 관내 해역 불법조업 강력 단속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연도 서방 2.6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무허가로 패류를 불법 채취한 다도 선적 어선 A호를 적발했다.전북도는 적발된 어선의 피의자를 신문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최근 도내에서 다도 근해영양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군산 연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등의 행위가 종종 목격된다는 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민원뿐만 아니라 우범해역의 불법조업 집중지도·단속을 위해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을 배치하며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처분이나 최고 어업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며 면세 유류 공급 중지, 어업 지원 자금이 회수된다.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봄철 어·패류가 산란하는 계절인 만큼 이

번 봄철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관내의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며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를 하고 그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안전농산물 위한 감시에 나서

농업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기반 구축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산물·농업환경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도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이면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농업용 항생제는 일반 합성농약에 비해 선택성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침투성이 높아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된다.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세균성 병해가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 연간 300톤 이상의 농업용 항생제가 생산, 출하됐다.농업용 항생제는 농축산업의 생산성 증가와 함께 병해충에서의 해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생제 오남용에 의해 발생한 내성균 및 슈퍼박테리아가 농산

물, 농업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등 안전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움직임과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따라 국내 가축 및 도축장, 축·수산물물 대상으로 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농업분야의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과 감시체계는 미미하다.농산물과 농업환경 내 잔존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인체 내 유입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국제식품규격 등 국제기구에서는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식품교역에서 동물성 식품 생산과정 중 항생제 내성감시 이행을 비판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남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부터 농산물과 농업환경의 식중독세균, 위생지표세균 등 7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와 작물 재배시기별 문제되는 병해인 풋마름병, 무름병 등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실태 조사를 수행한다.경남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한인영 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침을 마련해 농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제교역에 있어 수출경쟁력을 확보 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울산시,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합동점검

25일~29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05개소 대상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울산시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성수식품 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특히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 참여공무원이 소속의 지역 업소를 점검하는 교차점검으로 실시된다.점검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총 105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

고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설 성수식품과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목포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점검

목포시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시는 25일부터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10개소, 영화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5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건축·전기·가스·소방 전문가와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실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 교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소화설비 비치 및 상태, 전기설비 및 화기 취급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현장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시정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광명시, 다문화가정 위해 '광명소식지 번역본' 발행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광명시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광명 소식지 번역본을 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시장실에서 첫 발행된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중국, 베트남, 일본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

시는 다문화 가정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발행하게 됐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상위 다수 3개국어로 발행한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가정에 지역사회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광명 소식지 번역본을 발행하게 됐다"며 "다문화 가정도 우리 시민이다. 다함께 행복한 광명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예수임은 "언어로 인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 번역본을 발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소식지와 함께 보니



한국어를 익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하고 희망 가정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 소식지 번역본 우편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오산시,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AI특별교육도시 선도 부문' '대상' 수상

오산시는 AI교육 인프라 구축과 AI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할 통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등 AI교육과 관련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디지털조선일보에서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AI특별교육도시 선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산시는 교육혁신도시로서 AI교육 인프라 구축과 AI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왔다. '미래교육 메카도시 오산'을 캐치프레이즈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활용 기업보육시스템 지원을 위한 T.E.G 캠퍼스 조성 사업이 있다.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확보해, 2022년 개관 예정인 T.E.G 캠퍼스는 연면적 2,000㎡ 규모로 전문형 시제품 개발실을 중심으로 초기창업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입주한다. T.E.G 캠퍼스는 AR, VR, AI기술을 활용한 창업 훈련교육장으로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장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오산시는 AI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업무협약과 교육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 광운학원은 오산시에 '모디 클래스 로봇키트' 40대를 기부했고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40대도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기증받은 로봇키트는 교육부 SW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오산 세교고등학교에 전달됐고 이후 교사 연수를 지속 실시한다. 2020년 3월 오산 세교고를 AI융합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로 지정한 이래 오산시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AI 특성화고의 설립을 추진, 15학급 3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과와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관련 학과를 갖추고 기숙사까지 겸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교육의 산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오산시는 AI교육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교육 증가에 따라 학교 현장 내의 스마트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교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사업은 원격수업에 따른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 구축과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무선인터넷망 설치 및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의 융합교육과정 지원 등의 사업

이 구성돼 있다. 2020년 시범학교 6개교 지정에 이어 향후 오산시 전체 학교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사업은 향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의 스마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실현할 것이다. 광상욱 오산시장은 "AI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역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시흥시, 지역화폐 연동 건강걷기앱 '만보시루' 출시

1만보 걸으면 시루100원 적립

시흥시가 모바일 지역화폐와 연동한 건강걷기앱 서비스 '만보시루' 안드로이드 버전을 2021년 1월 22일 시범 출시한다. 시민건강권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만보시루 앱은 5천보부터 1만보까지 사용자의 목표 걸음 수에 따라 1일 최대 1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시흥시 지역화폐인 '모바일시루'로 실시간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운영 중인 다른 걷기앱과 만보시루의 차이점은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적립되어 시흥시 내 1만1천여 곳 골목상권 시루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의 도입·유통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강화에도 있는 만큼 이후에도 정책참여, 자원재활용, 사회경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화폐 연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만보시루 앱은 이 같은 방향성과 지역화폐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개발됐다.

안드로이드 버전 앱은 구글 'Play

▲ '만보시루' 앱에서 걷기포인트가 적립된 화면

▲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모바일시루가 충전된 화면

* 분기별 예산 소진시까지, 1일 최대 100포인트 적립						
걸음 수	5,000보	6,000보	7,000보	8,000보	9,000보	10,000보
지급액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 걷기포인트 적립 기준

스토어'에서 1월 22일부터, iOS 버전 앱은 '앱스토어'에서 2월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작은 실천방

법과 혜택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며 "앞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지역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더욱 증진시킬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안성시, '관광두레 으뜸두레' 공모...공예분야 주민사업체 '목금토 크래프트' 선정 쾌거

안성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목금토 크래프트가 '관광두레 으뜸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목금토 크래프트는 7개 분야의 안성지역 공예가들이 모여, 각자의 개성 있는 예술성에 지역의 정체성을 더해 안성을 대표하는 공예문화 기념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편집숍 및 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사업체로 공예의 대표적인 질료인 木, 金, 土의 이미지를 담아 사업체명을 만들었다. '관광두레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생적·협력적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으로 안성시에서는 김도영·이진희 관광두레PD가 지난 2019년부터 관광두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5개소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 중에 있다.

이번에 (주)목금토 크래프트가 선정된 '관광두레 으뜸두레'는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사업체 중에서 사업 지원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주민사업체를 선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관광두레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관광두레 모범사례를 발굴해 관광두레사업 추진 주민사업체의 사업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주)목금토 크래프트는 이번에 '관광두레 으뜸두레'로 선정되면서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

후 1년간 주민사업체 육성지원사업 관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목금토 크래프트 구성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다변화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목금토 크래프트가 우리 안성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경기도,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기존 오류 점검 후 새로운 방역 전략 세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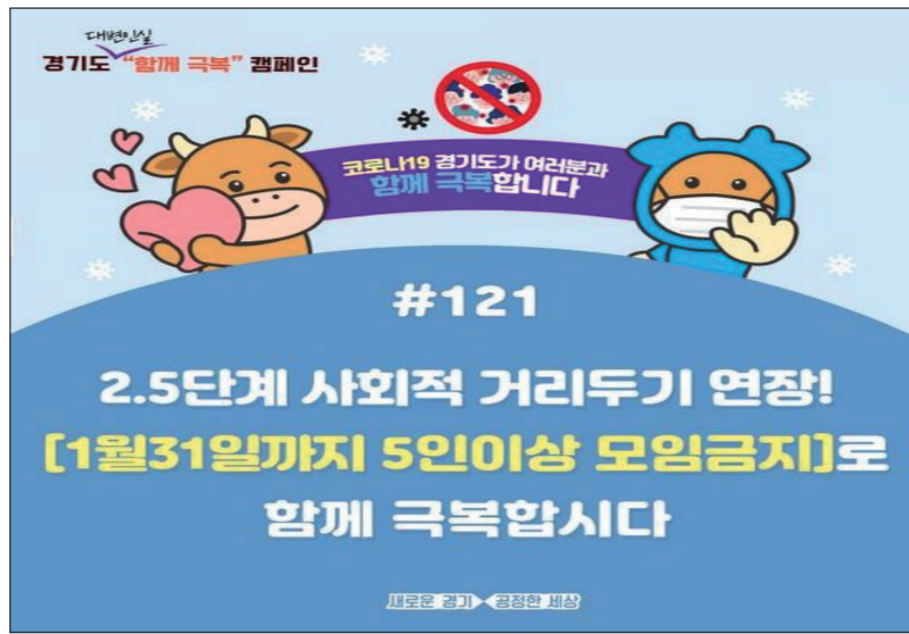
20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 총 1,619개, 병상가동률은 59.0%

경기도 내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큰 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집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산발적인 감염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방역의 오류와 한계를 점검하며 새로운 방역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유행의 확산의 불길이 잡혀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잔불이 아직 많이 남아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큰 불을 잡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빈도를 줄이고 철저한 마스크착용으로 불가피한 접촉 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으로 이런 실천이 약해진다면 유행 곡선은 필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경

기도는 유행의 소강 국면에서 지난 기간의 오류와 한계를 점검하면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6만6,41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는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택시, 버스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도내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6만6,439명 중 병가와 휴직자 20명을 제외한 6만6,419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대비 양성률은 0.00024%다. 임 단장은 “운수종사자 전수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일회성 단면 전수검사는 그 시점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도내 운수업 종사자들이 방역 프로그램에 대해 더 경



각심을 갖고 운수회사들이사내 직원 감염관리에 더 책임감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8명 증가한 총 1만 8,655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20시 기준 일

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1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9.0%인 95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73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101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58.3%다. 최정근기자

당신의 숨은 끼로 포천의 매력을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포천PD 모집

포천시는 오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포천 홍보 영상을 제작할 포천 PD를 모집한다. 지원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천시로 1년 이상 있거나 학교 또는 직장 소재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체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후 선정된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본인이 제작한 포천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PD로 선정되면 11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제출된 영상이 채택될 경우 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PD들이 제작한 영상은 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참신한 시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사람들의 지원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자 70명 모집

성남시는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 희망자 70명을 모집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을 20명 늘렸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시청·출연·민간위탁기관 내 23개 부서를 통해 24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자는 기록관 업무 지원 인력, 창의융합 미래교육 매니저사업 지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 인력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각 부서 추진 사업별로 다음 달부터 6개월~10개월간 하루 4시간~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500원을 적용한 급여액, 주휴수당 등을 합쳐 하루 6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사업 기간에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18세~34세의 성남시 거주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성욱기자

군포시미디어센터, 2021년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한다.

군포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군포시미디어센터는 군포시민들의 미디어·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교육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해 군포시민들이 미디어·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먼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미디어 인문학이 뭐가요?’는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파악하고 주제적인 시선으로 작품을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1월 28일과 2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학부모 유튜브 리터러시’는 유튜브라는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 ‘코로나시대 인택트 교육’은 현직 초·중·고교사와 미디어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미디어 트렌드 및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과 온라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교육센터에서는 정보 접근 및 활용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슬기로운 사이버범죄 예방법’은 현직 경찰관이 강사로 참여해 사이버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 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전달하며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다양한 SNS 매체에 대한 특성과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SNS 안전정보’ 강좌도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1월 25일까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미디어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정보화 교육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수강대상이 선정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전 연락 후 미디어센터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미디어 분야 진로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와 방송 스튜디오 현장을 체험하는 ‘무비가 좋다’는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영·유아 대상의 VR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 박스’와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도 준비 중으로 미디어센터에서 다양한 세대가 미디어를 활용에 교류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미디어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포시민이라면 미디어 함유 사업에 주목해달라고 미디어센터는 밝혔다. 팟캐스트 제작과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 동호회 사업은, 군포시민 3인 이상의 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팟캐스트 동호회는 전 연령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영상 동호회는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상영·비평을 할 수 있는 ‘시민 영화 프로그램’ 양성 과정’도 2월에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포시미디어센터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업을 연기하기 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미디어·정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양한 미디어체험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미디어센터·정보교육센터는 군포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다양한 미디어 체험과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시설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경북교육청, 재무·재산관리 실무 업무 본격 가동

결산, 계약 및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교육

경북교육청은 22일 화백관에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실무 교육, 계약분야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23명이 참석하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온라인 인터넷 생방송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결산 실무 교육은 결산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해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오는 3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4월중 결산심사 위원에게 결산검사를 수검하고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교육부 제출 등의 후속 조치 이후 모두 마무리된다. 계약분야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사항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수의계약시 도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원칙 등이 포함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선금 지급을 통한 신속한 교육재정 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품 등 계약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당부,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적극 협조 등 각종 계약 업무 현안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재산담당에서는 학교 담당

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방법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공유재산 업무담당자의 내실 있는 역량 강화를 꾀했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무, 재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주시, 'KTX영주이음 백일장' 우수작을 소개한다.

KTX - 이음 청량리 ~ 영주 개통 기념 SNS 이벤트 결과 알려

영주시는 KTX-이음의 개통됨에 따라 'KTX영주이음 백일장' SNS 이벤트를 통해 출품된 작품 중 우수작 5점을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작은 '영주이음 콘텐츠'로 제작해, 영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1월 5일부터 청량리~영주간 KTX-이음이 운영됨에 따라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인 '1hour영주' 시대를 기념하고자 'KTX영주이음 백일장'을 실시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영주'와 '이음' 두 단어를 사용해 25자 내의 글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SNS 이벤트를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영주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총 1,33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 중 당첨자 100명에게는 편지점 모바일상품권 기프트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5명에게는 영주대장간 호미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문구들을 보면 수도권과 가까워진 영주를 실생활에 녹여낸 재미있는 문구를 비롯해 코로나 시대 단절된 관계를 영주에서 잇겠다는 감성적인 문구, 2021영주세계풍기인상엑스



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문구 등 다양한 관점을 드러낸 작품들이 선정됐다. 정교완 홍보전산실장은 "이번 KTX-이음 개통에 따른 이벤트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 감각적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문경약돌축산물사업단, 2021년 비대면 판매·온라인 마케팅 강화

문경장터 약돌며느리' 밴드, 1월 26일부터 문경약돌한우설선물세트 판매

문경시 문경약돌축산물융복합명품화사업단은 2021년 새해를 맞아 비대면 판매와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골자로 한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은 문경약돌축산물융복합명품화사업단이 4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다. 속원사였던 문경약돌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난해 건립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대면 판매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업단은 종합유통센터 오픈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행사 결과 총매출 약 4억원, 일평균 매출 2500만원을 기록해 고객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경약돌종합유통센터에서 소시지, 육포, 팻간식 등 본격적인 육가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가공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경약돌축산물의 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속적인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비인기 지육을 활용한 가공식품, 밀키트류의 신상품을 개발

해 1인 가구 등 간편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비대면 판매 촉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현재 운영 중인 '문경장터 약돌며느리' 밴드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 문경약돌축산물을 홍보할 유튜브를 양성하고 '문경장터 약돌며느리' 밴드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와의 유기적인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문경장터 약돌며느리' 밴드는 설을 맞아 문경약돌한우설선물세트를 1+이상 등급의 안심, 등심, 채끝살, 업진살로 구성된 구입류 600g과 국거리 600g이 포함된 세트로 115,0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문경살로 만든 방앗간 떡국떡 1kg도 함께 증정한다.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문을 받고 2월 2일부터 순차 배송하며 배송비는 무료다. 이밖에 축산농가들의 친환경 미래 축산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문경약돌한우대지 브랜드의 미래 비전 확립 교육 및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문 문경약돌축산물융복합명품화사업단장은 "2021년은 사업단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산업화·고부가가치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해"며 "트렌드에 맞추어 간편식을 개발하고 온라인 접점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도 문경약돌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양군보건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에 집중

알레르기질환, 꾸준한 관리가 정답

영양군은 소아기 때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한다.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으로 붉은 발진과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불면,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에서는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교육자료 배부,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보습제 3회 지원,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토피·천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



히 아토피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습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수령 또는 개별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

는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양군, 농약방제복 등 영농안전장비 무상공급

영양군은 병해충 방제 시 농약흡입 방지와 중독 등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영농안전장비 1,350세트 구입, 2월중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영농안전장비는 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으로 구성된 안전장비로 특히 벼, 과수 등 농약 살포량이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공급되며 고흥농, 영세농을 대상으로 2월부터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공인 시험연구기관

에서 인정한 우수한 제품을 일괄계약 구매해 공급함으로써 농약 살포시 중독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영농안전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영농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약으로 인한 중독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별빛촌 장터, 설맞이 이벤트 할인행사

설맞이 20% 할인 행사, 회원구매 시 적립금 5% 지급

영천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 장터'에서 설맞이 이벤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설 대목을 앞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입점 상품 20% 할인과 무료 배송, 회원 구매 시 구매액의 5%를 적립금으로 제공한다.

'별빛촌'은 영천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브랜드로 '별이 많이 뜨는 맑은 지역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농

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천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별빛촌 장터'에는 사과, 배, 샤인머스켓 등 영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신선농산물과 농산가공품 100여 개 품목이 입점해 있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판매 생산능력과 업체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을 희망하는 소

비자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번 설맞이 이벤트 할인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해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별빛촌 장터 설맞이 이벤트 할인행사
2021.1.20~2.5(17일간)

- 혜택 01** 20% 할인 (일부품목 제외)
- 혜택 02** 무료배송 (일부품목 제외)
- 혜택 03** 적립금 5% (회원 구매시)

이벤트 상품 수량 초과 판매시 조기마감 될수있습니다

창녕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창녕군은 지난 20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홍보, 지역 발전 공동체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역량 및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현안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군정목표 아래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보다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해 주민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하동군, 지역관광개발사업 우수사례 2건 선정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등 전국 유일 2건



하동군이 지난해 전국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우수사례 10건 중 전국 유일하게 2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관광개발사업 우수사례는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의 일환으로 추진이 완료된 전국 관광자원개발사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자체 평가를 통해 10건이 선정됐다.

문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번 선정된 관광개발사업의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해당지역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사업 10건은 강원

양구·정선 각 1건, 충북 충주 1건, 경북 울진 1건, 경남 하동 2건, 전북 임실·남원 각 1건, 전남 곡성 1건, 제주 1건 등이다. 하동군은 10건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 등 2건이 선정됐다.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아시아 최장' 짚와이어와 빅스윙, 킥점프, VR관 등이 조성돼 있다.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에는 내년 세계차엑스포 개최 이전 오픈을 목표로 현재 금오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가상 공간을 현실화해 전통한옥체형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옥문화관 4동, 한옥체험관 2동을 만들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위탁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하동군이 10건의 우수사례 중 2건이 선정된 것은 유상기 군수의 민선6기 취임 이후 하동의 100년 미래 먹거리가 관광개발사업에 있다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개발에 역점을 둔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올해 532개 정보화사업에 870억원 투입

부산지역 ICT경기 활성화, '2021년 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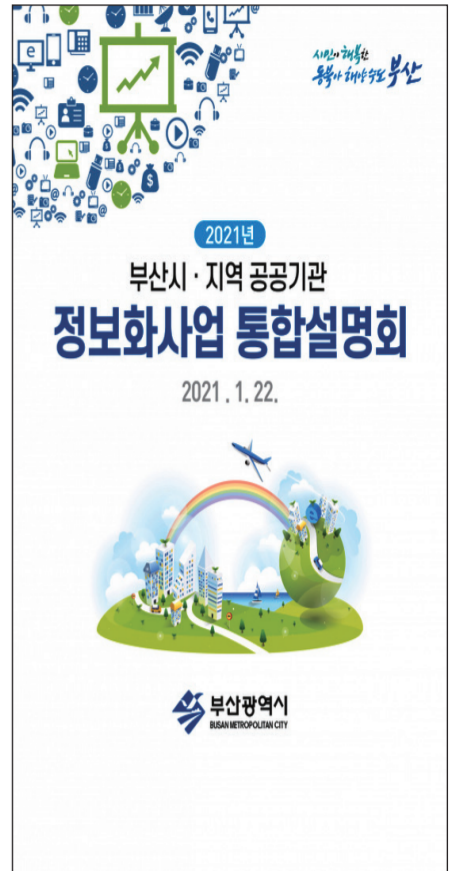
부산시는 2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부산지역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정보화사업에 본청과 사업소 94개 사업 354억원, 구·군 329개 사업 180억원, 공사·공단 38개 사업 54억원, 출자·출연기관 및 부산이전공공기관 71개 사업 282억원 등 532개 사업에 87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456개 사업 대비 16.6% 증가한 규모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및 고도화 100개 HW/SW 구입 159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105개 운영 및 유지관리 168개 등이다. 올해 주요사업은 데이터 기반 경제·문화·생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긴급차량 우선순호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차세대 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고도화 및 119종합상황

실 접수대 증설 사업 등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며 시민, 정보통신기술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와 구·군, 공사·공단, 부산이전 공공기관 등이 함께 올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정보, 관련 법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참여하며 부산시 정보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소개 발주예정 정보화사업 목록 및 주요 사업 안내 사업비 3억 이상 사업 업무담당자 상세설명 집의 응답순으로 진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최대한 많은 정보화사업을 소개해 지역 ICT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례 설명회 등으로 지역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청송군,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실현"

청송군은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실현"이라는 올해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송군은 올해 군민 모두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 빈곤완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함께 살아가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 군민 삶의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지원을 현실화하고 경로당 신축·환경개선을 통해 소외와 불편 없는 행복경로당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산소카페, 청송군' 만들기, 시니어합창단 등과 같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적극 발굴해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센터 확대하고 기초연금, 전월목욕탕,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등, 어르신들이 신바람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

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동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에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인 진보키즈카페와 어린이놀이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 특화프로그램, 모국방문지원사업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등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교급식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청송인재양성원 운영을 통해 학습편의 및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품청송아카데미, 명품청송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지역사회복지의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해 수립할 예정이며 사회보장가구 책정을 위한 기준정보 자료 확인·분석 검토·현장실태조사 및 결정은 물론,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해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적절한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더욱 더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증대 기회제공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장애인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또한,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힘들게 살아가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육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인적·물적 안전망을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해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 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울진군, 네이버 밴드 '울진의 소리' 운영

재난안전 소식 및 생활 정보 신속 공유

울진군은 새로운 규정 홍보 및 소통을 위해 SNS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울진의 소리'를 개설해 운영한다. 군은 규정 알람 사항과 재난 상황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밴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울진의 소리' 밴드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경제 정보부터 재난안전소식, 문화 행사·축제 홍보 등에 관련된 글이 게시되며 게재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댓글로 남길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주민 홍보사항을 폭넓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밴드 가입은 군민, 출장인 등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네이버 밴드 앱에서 '울진의 소리'를 검색하면 된다. 김광대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군민들이 밴드에



가입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

는 밑작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밀양시, 2021 SNS알리미 활동 시작하다

경남 밀양시는 SNS를 통해 밀양의 구석구석을 소개할 2021년도 밀양시 SNS알리미를 선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은 코로나19 관계로 대면 전달하지 않고 SNS교육자료, 활동시 유의사항, 관광안내자료 등과 함께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SNS알리미는 20명으로 올해 연

말까지 1년간 활동하며 연락처 랜선여행으로 밀양을 둘러볼 수 있게 전국민을 밀양시 SNS로 초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SNS알리미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550만명이 밀양시 SNS를 방문해 온라인 홍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밀양의 숨

겨진 매력과 좋은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찾고 싶은 밀양이미지 홍보를 위해 SNS알리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치유형여행, 근교중심여행 등 코로나시대에 변화된 여행패턴에 따라 밀양시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합해서 천만 관광객 만들기, 합천관광 SNS서포터즈 모집

합천군은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14일간 '합해서 천만 관광객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 합천관광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SNS 서포터즈는 합천관광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개인 SNS 계정의 게시물 10개 이상, 팔로워가 100명 이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재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합천관광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지역의 관광지·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의 소식 포스팅과 현장 취재, 숨은 관광지 및 맛집 소개 등 각종 합천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선정된 원고에 한해 1편 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번 SNS 서포터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2월 3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

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성 있고 참신한 콘텐츠로 관광 홍보의

질을 올릴 기회"며 "합천 관광 홍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전북도만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20억원 차액 지원

생산과 유통에 들어간 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도 걱정 없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 도내 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그것으로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유통 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준다. 올해에도 양파 등 5개 품목 610농가가 20억여 원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전북도는 2020년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등 5개 품목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610농가가 19억 6천 9백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가격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는 1월 4일 주간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품목 및 단가를 확정했다.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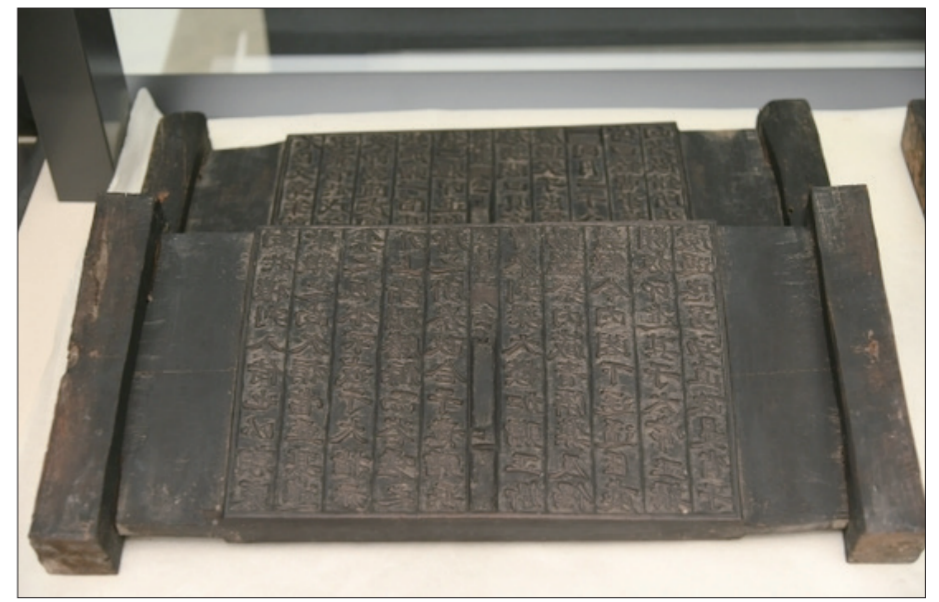
락해 지원이 결정된 품목은 5개다. 양파 296농가 12억7천7백만원, 마늘 95농가 4억2천9백만원, 노지감자 130농가 8천8백만원, 가을배추 49농가 2천7백만원, 가을무 40농가 1억4천8백만원이 지원된다. 지급이 결정된 차액분은 설 명절전까지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역대 가장 많은 농업 직불성 보조금 약 4,88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단순 소득 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기에 가격하락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메꿔주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전북도만의 사업이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 동안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민선 7기인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 가격이 하락한 4개 품목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출하 농업인 773농가에 4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과 더불어 전북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키는 농업 현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남원 양대사마실기 목판 전북도 문화재 지정

왕명에 의해 간행된 원본의 목판



조선시대 간행된 208장 원본의 남원 양대사마실기 목판이 전라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 남원시는 남원양씨 종장공파 종중의 '양대사마실기 목판'은 개인 문집임에도 불구하고 왕명에 의해 간행된 목판으로 판각기법이 매우 훌륭하고 결락된 판목도 없는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양대사마실기 목판'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의병 양대박에 대해 심찬지 등이 간행한 11권 5책으로 구성된 책이 1799년 왕명에 의해 판각한 것이다. 양대박은 남원 출신의 의병으로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담양으로 가서 고경명을 만나 맹주로서 추대하고 북상해 5월에는 전주에서 의병 2천 명을 모은 바 있다. 특히 그는 고경명과 함께 금산에서 왜적을 맞아 싸웠고 양대박은 아들 양경우와 함께 전신을 지키게 되니 의병을 모을 때의 피로로 진중에서 병을 얻어 전산에서 49세에 사망하게 되고 이후 충장이란 시호를 받는다.

이렇게 의병 양대박의 사적이 담긴 '양대사마실기 목판'은 현재 결락된 책판 없이 총 208장의 목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각이 정교하고 서체가 미려하며 정조의 명에 의해 제작된 것이어서 희소성이 크고 조선시대 출판 문화와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목판의 판각 깊이는 대략 0.4~0.5cm 정도로 동시대 판각된 다른 목판에 비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796년 양대박 부자의 총의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양대박 부자 총의문'은 2000년 11월 17일 도 문화재자료 제170호로 지정되었다"며 "우리 시는 이번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양대사마실기 목판'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부안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1~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 선정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별·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해야 하고 사물인터넷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을 통보하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동남아 아열대 채소 재배로 겨울철 틈새시장 공략

기후 변화 대응 지역 특색 농업 발굴, 고소득 창출 기여

아열대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정읍지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아열대 채소가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에서 맛본 이국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습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 다국적식당과 국제식품 판매장이 증가하고 있어 아열대 채소에 대한 수요와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환경개선과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으로 아열대 채소를 시범 재배하고 있다. 정읍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채소는 공심채와 베트남 갓 배추, 오카라

등 20여 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인면 김수연 농가에 겨울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시설하우스 내부에 다짐 보온터널을 설치해 지역 적응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지속된 한파에도 아열대 채소의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어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허브 향신료를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읍지역에서 재배가 한창 진행 중인 베트남 갓 배추는 우리나라 여수 갓보다 특 쏠 맛

최하은/기자

순창군, 공유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할 단체 찾는다

접수기한 이달 27일까지,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 마을기업 등

순창군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역내 참신한 단체와 법인을 찾는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실업, 고용, 문화, 관광 등 사회적반면에 걸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내 비영리 민간 단체,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신청을 기다린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지원금액의 10%이상이며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된다. 기존 대다수 사업들이 경쟁적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반해 이번 사업은 도비는 경쟁적 경비, 군비는 시설구축 등 자본

적 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생 단체들도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다. 최근 공유경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숙박, 소공연장 대여사업 등이 대도시에서 소규모 투자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해를 누리고 있는 공유경제 중 하나가 공유주방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이 확대되면서 얼어붙은 구직시장에서 창업으로 희망하는 청장년층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군도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 뿐 아니라 환경문제나 교육,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을 추진할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의 주된 활동영역이 순창군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통한 수혜대상이 순창군이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단체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달 2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이 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단체들도 점차 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나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장수군 산지공판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공판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마케팅유통컨설팅 대표 배이만 박사가 보고자로 나서 비대면 스마트 경매타운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결과보고회 및 혁신유통체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의 비대면 시스템 기반의 경영을 통해 전국 농산물 유통시설 중 선도적 혁신성을 이끌어 성공모델을 정착하고 내부적으로 기존의 APC 및 융복합단지과 연

계한 관내 유통시설 집적화를 구성해 1차 농축산물의 가격 및 출하의 문제점을 예방, 농·축산물의 다양성 및 판로 확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산지공판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제안 공모사업 확정 이후 3개월여 간 용역을 실시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스마트 경매타운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윈윈 스마트 경매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동부권을 대표하는 농산물 거래의 거점으로

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수군만의 그린 뉴딜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공사비 지원

전주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과깅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 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정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과깅 사업'으로 총 1138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유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며 "그린과깅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건의 행안부장관 '공감' 광양시,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파격적 주거정책 추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섬 진흥원 전남 설립 등 6건 건의

최대 1,500만원까지 이자 지원,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자 대폭 확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

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정회까지 진행됐으나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 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섬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어 섬 발전 정책과 사업 수행의 최적지"라며 "그동안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과 유지에 노력해 온 점을 감안, 반드시 전남에 설

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 등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사회·경제적 기반 불균형과 함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날 현안 건의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안/기자

광양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에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하고 청년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총 781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지역에 정착했으며 올해도 대상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사업으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이 있다. 광양시 대표 주거복지 시책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만19세~39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차공고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영양·우주·덕진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19세~39세))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자녀 3명 이상	지원대상 광양시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 사업자 (만18세~39세)
지원내용 주임 : 연 최대 300만원, 최장 5년 전세 : 연 최대 200만원, 최장 4년	지원내용 연 60만원 ~ 180만원, 최장 3년	지원내용 연 최대 120만원, 최장 1년

문의처: 광양시 정책직접실 (☎061-797-1995) ※ 각 사업은 중여지원이 불가함

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주택 가격도 구입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전세는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인기가 높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연 60만원 ~ 18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16세대에게 약 1억 7천만원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젊은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

에서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만 19세~39세 광양시 거주 청년노동자나 사업자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지원자 58명에게 총 5천 4백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0명의 대상자를 모집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시는 유입 인구의 정착과 다양한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까지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150세대 규모의 청년 행복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성황 도이지구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주택 130호가 건립된다. 창업주택은 2024년 6월 말 완공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젊은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광양시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주거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식/기자

곡성군, 전남 최초 석곡 시가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석곡권 시가지 활성화 발판 삼을 것



곡성군이 지난 19일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지정이 되면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의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분류된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법'이 개정됐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 11월 30일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석곡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곡 상가상인회 설립과 등록을 이끌어내며 지역상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석곡면 시가지 활

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136억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까지 연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민관 협력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례군의 도시경관이 화려한 변신을 꿈꾼다. 전남 구례군이 올해도 노후도심을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구례군은 2021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센터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자체 교육운영 등이 있다. 구례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갈 지역주민과 주민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취·창업학교, 마을 콘텐츠 연구소 운영, 마을해설사 양성,

주민해학학교, 도시재생대학 운영,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마을활동가 운영 7분야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도 적극 활용해 주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자체 교육으로 2020년 시행한 '그린뉴딜 꽃채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심화해 그린뉴딜 꽃채운 대학 운영으로 개편 확대하고 가을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권 센터장과 전문 코디네이터로 구성해 구례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역할과 민·관·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고 있다. 특히 선

터를 갖춘동부, 작두봉 등 텃밭농산물과 야생화, 계절 꽃으로 채운 사랑방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이 언제나 내방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다. 언제나 쉽게 찾는 열린 공간에서 민원사항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연출 등 교육장으로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내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1년은 구례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년차로 접어들고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해이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주민참여 확대해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광양시, 한부모가족자녀 신학기 준비 프로젝트 '책가방을 부탁해' 실시

광양시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입학 앞둔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10가정 아동의 힘찬 출발을 위해 맞춤형 책가방 지원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빈부격차는 물론 교육 격차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생존 위협까지 느끼며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는 입학을 앞두고 멋진 가방과 학용품을 받지만, 누군가는 당장 학교에 메고 갈

가방을 사는 것이 어려워 상처 입기도 한다. 첫 출발부터 취약계층이 차이를 느끼며 열등감을 받지 않도록 응원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이다. 프로그램은 학령기 자녀를 위한 '책가방을 부탁해',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꼬까옷을 부탁해',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부탁해' 순으로 진행되며 네이버 해피빈과 포스코 프렌즈 봉사단의 기부금으로 진행된다. 손경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새로운 출발점

에 선 아이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족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숙와 여성가족과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가 경제적인 부분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기식/기자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김 전복 대파 울금

진도아리랑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조길형 시장,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강조

농사철·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 피해 재발 없도록 설계 반영 등

조길형 충주시장이 시민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행정 실천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22일 열린 정책토론회 의회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능동적인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진정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올해 농사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지역의 토사 처리 및 복구 등을 완료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이 수해복구를 통해

안전의 단계가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필요한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등을 두루 확인해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복구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와 관

련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도 “최근 노래방, 외식업소에서 코로나로 인해 겪는 고통을 호소할 것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재난복구라고 할 수 있다”며 “원칙을 준수하되 지역의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유연함까지 갖춘, 신속·완벽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국 술산업체 춘천 집중, 우수 누룩 춘천에 몰린다

춘천시정부, 22일 강원대와 함께 누룩연구소 현판식 진행

춘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핵심 기반인 누룩연구소가 마침내 문을 연다. 춘천시정부와 강원대는 22일 누룩연구소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누룩연구소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물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를 말하며 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연구 분야다.

그동안 시정부와 강원대는 누룩연구소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 협약을 맺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누룩연구소는 유용 누룩 미생물 수집 및 우수 종균 발굴, 제조 조건에 따른 누룩의 발효미생물 분포 주질 특성 연구를 하게 된다. 특히 지

역업체 우수 종균 보급, 주류 제조 및 품질평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누룩연구소를 통해 시정부는 춘천형 뉴딜,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춘천지역 술산업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기대한다. 누룩연구소와 더불어 앞으로 시정부는 과거 일제의 수탈로 사라진 가양주 문화를 다시 찾고 춘천의 자연환경과 시민의 삶을 담은 우리술 문화의 복원을 위한 지역 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하는 춘천술 페스타, 대한민국 명주대상 등 굵직한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해, 술의 도시 춘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은 “누룩연구소는 춘천 술산업 육성의 핵심이자 첫걸음이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연구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춘천 술산업,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최재은/기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12월 완공...최신식 편의시설 구비

산악·해안 잇는 사통팔달 거점 복합터미널 탄생

올해 완공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설악관에서 최신식 시설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산악과 해안을 잇는 거점형 문화복합타운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로 1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만, 2월부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모든 공정이 끝나는 오는 12월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축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394㎡,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1,800㎡의 규모로 조성한다. 최신식 시설로 건축하는 이 시설은 1층에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발권기, 수하물 보관소, 정비소 등 터미널 기본시설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도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층에는 사무실과 함께 카페도 운영해 터미널 이용객들의 휴게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양양여객터미널 주변에는 양양농협의 대형 하나로마트가 신축되고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인근에 양양경찰서도 신축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북부선 양양역사도 2027년 개통하게 되면 교통·행정·경제가 어우러진 역세권으로 거점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일반 차량 등의 동선과 이용자 동선, 시설 구성 및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배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의 기능 배가를 위해 오색과 이어지는

44번 국도와 연결하는 동시에 7번 국도와도 쉽게 연계되도록 주변 도로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양양읍 송암리-연창리 일원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1개 노선을 신설하고 9개 노선은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을 완료하는 등 교통 중심지로서 도심확장 구역인 양양뉴타운과의 연계성도 크게 높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12월 완공되면, 오색으로 대표되는 산악관광지와 낙산지구의 해안관광지를 직결하는 사통팔달의 거점형 문화복합여객터미널로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양양군이 활성화를 지원하는 양양국제공항과 플라자강원의 항공인프라가 추가 연계되면 관광산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배후지역인 낙산지구 도립공원해제에 따라 맞춤형 친환경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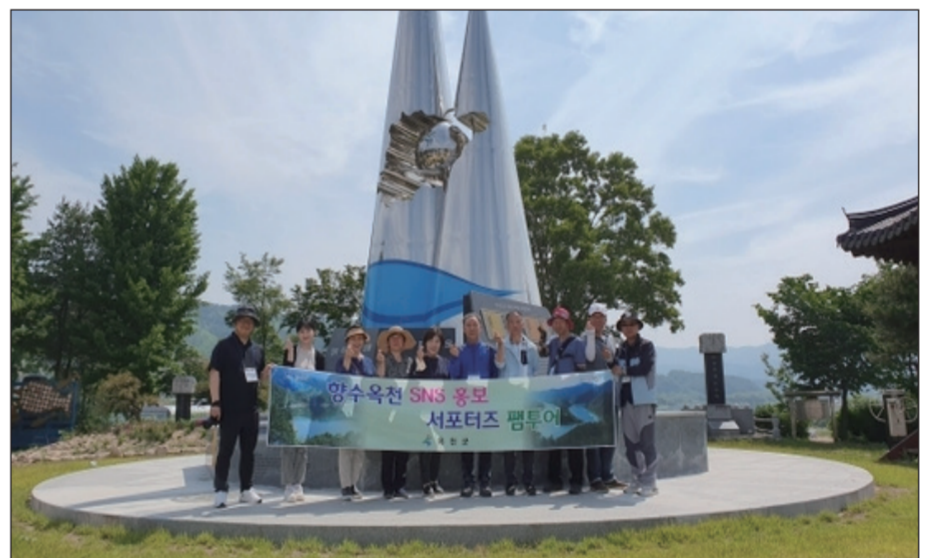
안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도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현북면 서피비지와 강원면 몽돌소리길 등 양양군의 해안관광 인프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동해안 중에서 수도권과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양양군에 신축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육상교통의 플랫폼 역할을 해내며 새로운 산업화의 지름길로서 평가받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우리군이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연내 완공하는 종합여객터미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사통팔달의 거점형 교통인프라로서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산업화의 핵심도로와 주변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옥천을 함께 알리자’ 제3기 향수옥천 SNS 홍보 서포터즈 모집

다음달 10일까지 15명 모집,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활동



충북 옥천군이 군민 공감과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3기 향수옥천 SNS 홍보 서포터즈’ 15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옥천군의 관광명소, 축제, 행사, 군정 소식 등 지역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직접 취재하고 이를 개인 SNS 및

군 공식 SNS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활발한 SNS 활동 및 개인 블로그 운영자 중 직업·성별 관계없이 옥천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교와의 지역협력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모집인원의 일부를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군은 서포터즈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워크숍, 교육, 사전답사여행, 연말 홍보 유공 표창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수옥천 SNS 홍보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는 분은 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 또는 옥천군청 기획감사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달 17일 옥천군 홈페이지와 군 공식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2기 향수옥천 SNS 홍보서포터즈의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5명이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향수옥천 SNS 홍보서포터즈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군민 공감과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옥천군 홍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홍천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노력

홍천만의 임산, 출산 등 특색 있는 시책으로 다양한 혜택 제공

홍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홍천만의 임산과 출산, 보육 등에 대한 특색 있는 시책을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축하물품으로는 보건소에서 아기띠 또는 젖병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축협은 통장 개설 시 출산 축하금 10만원 지급, 사랑말한우는 산모용 소고기와 미역을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으로는 가임기 산전 검진비와 유축기 대여, 산후 영양제 2개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산모·신생아를 보살피는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도 확대, 국·도비 지원 사업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일반출산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출산 가정의 소득 제한 없이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차량은행비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는 영아 1인당 월 6만원, 유아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은행비는 영·유아 1인당 월 2만 5천원을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필요한 홍천만의 다양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공주시, ‘과학영농의 시작’ 토양검정으로 풍년농사 준비

무료 토양검정서비스 통해 작목별 토양시비 처방

공주시는 작목에 따른 알맞은 토양환경 조성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료 토양검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토양검정서비스는 땅의 영양 상태를 필지별로 정밀 분석해 작목별로 비료사용량과 토양개량 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기술지도해 과학영농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농서비스이다.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농한기에 실시해야 작물 생육이 좋을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많이 썼던 비료의 양을 줄일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필지 당 5개의 지점의 토양에서 깊이를 3cm 정도 견어내고 15cm 깊이까지 흙 500g을 채취, 골고루 섞어서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시는 토양분석을 거친 뒤 작목별 토양시비 처방서를 15일 이내로 농업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술보급과장은 “공익적불제, 친환경·GAP 인증 등을 위해 매년 4,000여점의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축 퇴비 부숙도 측정,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등 다양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희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도로변 띠녹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가로변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

청주시가 도심 생활권의 미세먼지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띠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1순환로 1.0km와 산성로 0.4km구간에 보도 포장을 견어내고 지역간에 맞는 상록

수와 낙엽수를 1.0m 폭으로 식재해 미세먼지 분산 저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띠녹지 조성은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에 키작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빗물 투수층이 만들어져 효율적인 빗물관리도 홍수 경감 등 재해예방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나무 식재로 인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도로

에서 밀려드는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녹지공간은 열섬현상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홍성군보건소, 코로나19 위기 속 보건행정실적 빛났다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020년 2월 발생해 범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지난해 8개 부문의 기관상과 3개 부문의 개인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사업 부문 “대상”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3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 감염병 관리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 장관상 지역차별예방사업 유공 표창 총칭남도 주관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감염병관리 유공 국무총리상, 국가예방접종과 건강검진 2가지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은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자전거21 고양시지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양시는 자전거21 고양시지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자전거21 고양시지부는 자전거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양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이번 공모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5월 설립된 자전거 교육 전문단체인 자전거21 고양시지부는 찾아가는 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성인 자전거 안전교육 청소년 자전거 보안 활동 등을 통해 고양 시민의 자전거 생활화, 안전의식 개선, 자전거 저변 확대 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고양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보조금 지원 단체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행의 중요성과 사고를 예

방하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안 등을 알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율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은 안전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자전거21 고양시지부의 한기식 사무국장은 "고양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자전거 활동을 시민 모두의 건강운동이자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 상은 그동안 자전거활동에 동참하고 격려를 보내준 자전거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들의 덕분이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는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표창장 전수식으로 대체해 진행했다. 지난 19일 고양시 이준표 제2부시장이 자전거21 고양시지부의 한기식 사무국장에게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했다.

정동희기자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 2021년 제8회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수상

제8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공신자를 발굴, 분야별 선도자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 선정된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40년 역사의 중진공에서 32년 6개월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세종TP의 초대원장으로 취임해 사업, 조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세종시 지역혁신성장 거점의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美 실리컨밸리 자율주행 리딩기업 '팬텀AI코리아'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19개사를 세종시에 유치했고 맞춤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사업'에 세종시 기업 2개사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전국대비 0.3%로 기반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이뤄낸 쾌거이다. 또한 중기부 제1차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이어 제4차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추가 지정됐으며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사업에 신규 선정되는 등 세종시의 자율주행산업 육성기반 확대에 힘썼다.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지역콘텐츠 거점기관 지정 등 사업 및 기능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했으며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총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종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현태 원장은 "중소기업지원 부문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 진단기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현장의 밀착지원을 강화하며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지원사업을 확장하는데 중앙정부, 세종시, 유관단체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은기자



강진 남미륵사 범홍스님 국무총리상 수상

35년 이어진 봉사활동 공로 인정 받아



세계불교미륵대종 총 본산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범홍 주지 스님이 35년 동안 펼친 꾸준한 봉사를 인정 받아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범홍스님은 지난해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표창을 전수 받은 범홍스님은 "과분하고 큰 상을 받게 되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이웃을 돕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스님은 지난 35년 동안 나눔과 봉사를 해 오면서 3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인재육성과 소년소녀가장, 시설 등에 기탁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결흔식을 올리지 못하는 30쌍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학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5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기도 했다. 특히 매년 5만 포기 가 넘는 김장으로 독거노인과 경로당 등에 나누어 든든한 겨울을 나도록 했고 강진군민장학재단에 8천만원이 넘는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100% 천연 화장품 스와니코코·배우 문예원, 장흥군 다문화 여성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100% 천연 화장품 브랜드 스와니코코와 윌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문예원은 21일 장흥군에 거주하는 250명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스와니코코는 다문화 여성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제공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문예원 배우는 2018년 영화 '근지암'을 통해 데뷔해 개성 있는 캐릭터와 연기력으로 큰 호평을 받은 배우다.

최근에는 드라마 리갈하이와 하이에나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천연 화장품 브랜드 스와니코코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문 배우는 "모국을 떠나 농촌 생활을 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자신을 아

름답게 가꾸고 당당한 한국 여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윌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소리바다는 지난 12월 장흥군 아동들에게 150컬레의 신발을 지원했고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다문화 여성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전해 준 스와니코코와 문예원 배우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스와니코코와 문예원 배우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다문화 여성의 삶을 함께 응원하며 지원해 주는 장흥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세계평화여성연합 가평지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1000매 기부



지난 21일 세계평화여성연합 가평지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가평군보건소를 방문, 일회용마스크 1,000매를 기탁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를 위해 UN과 국제협력, 지도자교육, 국제구호와 나눔과 봉사, 인종·문화·종교적 화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고자 전세계 120여 국가에 지부를 두고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가평군지부 지부회장 아마노 타미씨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다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여주시산림조합, 여주시임업후계자협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01월 21일 불우이웃돕기 각각 일백만원 성금

여주시산림조합과 여주시임업후계자협회는 1월 21일 여주시청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1백만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이후정 산림조합장, 이필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여주시협의회장, 장흥기 산림공원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여주시산림조합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급년도 사업비 약 10억원 규모의 산림정원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산림조합과 여주시임업후계자협회는 1월 21일 여주시청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1백만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이후정 산림조합장, 이필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여주시협의회장, 장흥기 산림공원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여주시산림조합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급년도 사업비 약 10억원 규모의 산림정원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임업후계자협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올해 10

이성윤기자



문경시장학회, 새해부터 기부행렬 잇따라

문경시장학회에 새해부터 장학금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에코제이피 1,000만원, ㈜벽산조경 500만원, DGB대우은행 문경지점이 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기탁했다.

보도블럭 생산업체인 ㈜에코제이피는 2015년 2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18년 각 300만원, 2019년에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매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류시연 대표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달한 장학금이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조경식제 전문업체인 ㈜벽산조경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윤희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

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울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DGB대우은행 문경지점에서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5,500만원을 기탁했다. DGB대우은행 문경지점은 시금과 협력사업 약정을 맺고 문경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문경시장학회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500만원씩 후원할 예정이다. 문경시장학회 고윤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지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상공인 대상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김해시 관내 음식점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과 희망을 나누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 운동'은 음식점이나 상점 등 소상공인·자영업 가게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 재방문해 실제로 이용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길이 끊겨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경상남도서비스원도 적극 동참했다. 이성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선결제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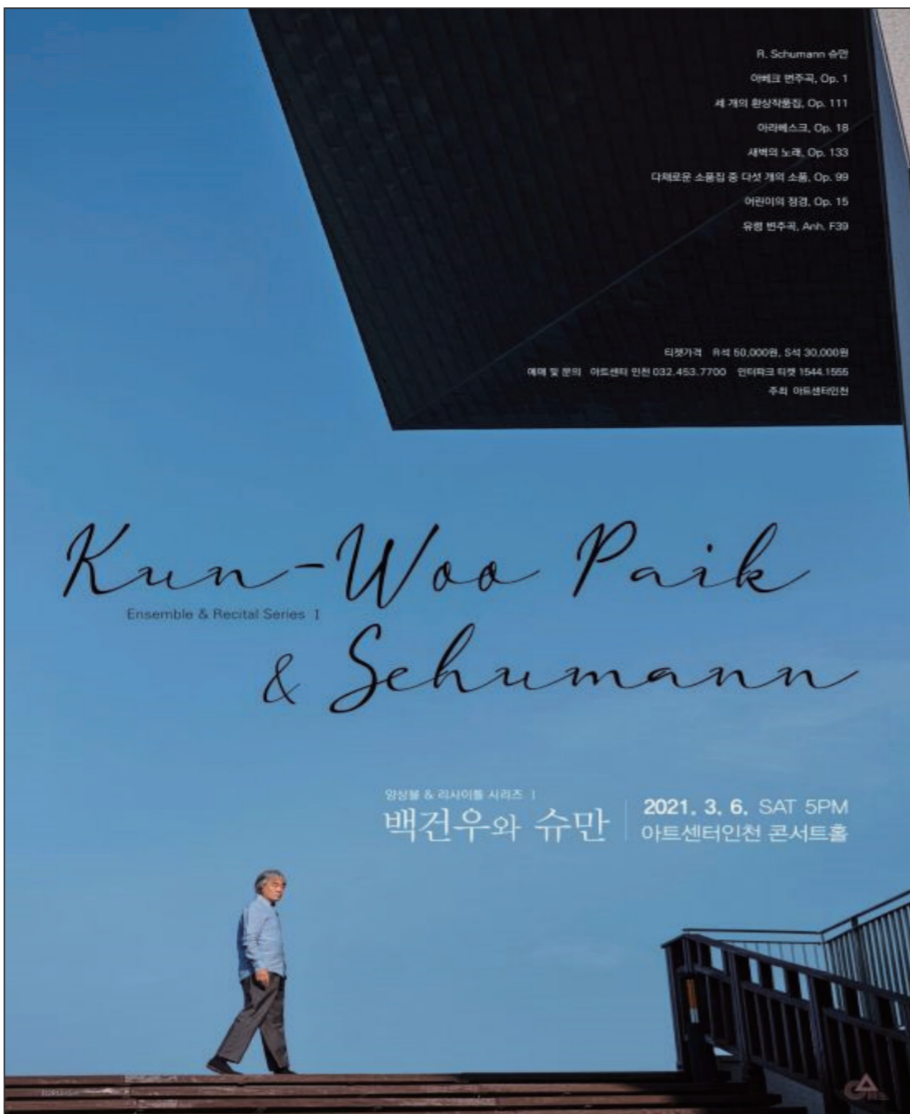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손님

최광용기자



아트센터인천, 백건우 피아노리사이틀로 시즌 첫 공연 시작

클래식 공연장 아트센터인천이 올해 예정된 연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첫 티켓예매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고 22일 밝혔다. '월드오케스트라', '양상블&리사이틀', '시리즈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연간 40여회의 공연 프로그램을 관객과 만날 준비에 한창인 아트센터인천이 올해 처음 선보일 무대는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백건우와 슈만'이다. 오는 3월6일 '양상블&리사이틀'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백건우와 슈만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심도깊은 연구와 탐구를 바탕으로 영감 가득한 슈만의 젊은 나날과 점차 깊어지는 광기로 얼룩진 삶의 후반부를 동시에 그리며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도이치그라모폰(DG) 레이블에서 발매한 신보 '슈만'으로 전국투어에 나서 '슈만의 영혼을 위로한 연주', '슈만의 삶을 위로한 진중한 기도' 등의 찬사를 얻었던 일흔다섯의 거장은 음반에 담긴 2장의 CD에 각각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제는 내성적이며 순수하고 열정적인 동시에 공격적이었던 슈만의 서로 다른 자아에 작곡가가 직접 명명했던 이름이다. 백건우는 한 인터뷰에서 "젊은 때에는 오히려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불편했다"며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만큼 슈만의 세계가 복잡했던 거다. 이번엔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녹음을 하면서 슈만의 삶과 음악이 더 깊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리사이틀은 지난해 투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슈만의 첫 작품인 '아베크 변주곡'으로 시작해 3개의 환상 작품집, '아라베스크', '새벽의 노래', 대체로운 소품집 중 다섯 개의 소품, '어린이의 정경'에 이어 작곡가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곡 '류령 변주곡'으로 마무리된다. 아름다운 선율로 널리 사랑받은 대표작뿐 아니라 슈만의 어둠이 녹아든 곡을 고루 조명하며, 순수한 열정으로 피어올랐으나 음악과 사랑에 번뇌하다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작곡가의 음악적 시작과 끝을 섬세하게 되짚음으로써 슈만의 삶과 음악을 재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상블&리사이틀'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클라리네티스트 자비

네 마이어&아르미다 콰르텟, 소프라노 임선혜&카운테너 다미양 귀용,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 소프라노 조수미&이 무지기의 무대로 이어진다. 티켓예매는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른 공연장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연장 객석은 두 칸 띄어앉기로 운영된다.

김종남/기자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키트활동 지속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한 설 명절 체험거리 제공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단지 내 설치되어 작년 11월에 개관한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설날에 우리가족 뭐하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 지역사회 현황 및 요구조사 결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날에 우리가족 뭐하지?'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 및 전통놀이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설날의 유래와 전통놀이를 알리고 설날에 할 수 있는 체험거리 제공을 통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코로나를 예방하고 가족 간 화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설 명절을 주제로 한 체험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 공지된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진행된다. 더불어 신규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라운딩을 원하는 경우 최소 인원으로 이용자명부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시 청소년 관람이 가능할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

김원호/기자

KBS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비엔나의 새 아침'

KBS교향악단은 오는 30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2021년 실내악 시리즈의 첫 번째 연주회 '비엔나의 새 아침'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주회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와 슈베르트가 10대에 작곡한 두 작품을 선보인다. 스페인 태생의 차세대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멘데스가 지휘봉을 잡는다. 첫 곡으로는 모차르트가 10대 후반에 잘츠부르크의 귀

족과 대주교를 위해 작곡한 '현을 위한 세 개의 디베르티멘토 K.136, 137, 138'를 연주한다.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의 세 악장으로 구성, 상쾌한 아침 햇살 같은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다. 두 번째 곡으로는 낭만 시대를 연 비엔나 토박이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5번 B♭장조, 작품 485'를 연주한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19세에 작곡한 곡이다. 유쾌한 선율에서 마치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분위기를

온전히 전해 받은 듯 모차르트의 기가 짙게 배어 나온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실내악은 연주자와 연주자 사이의 빈 공간을 관객이 함께 채워가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며 "올해는 실내악 시리즈를 통해 KBS교향악단의 고유한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당신이 남은 자리' 전시 개최

21일부터 문신미술관 재개관, 5인 인원 제한해 현장 입장 가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21일부터 '2022년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과 공동기획한 '당신이 남은 자리' 전시를 개최한다. 서울·부산·창원의 섬유예술가 18명이 출품한 50여 점의 작품은 퀼트와 섬유작품 그리고 섬유예술가들에 의해 재탄생된 리디자인 의자 작품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리디자인 의자 작품은 '당신이 남은 자리' 전시 테마에 맞춰 제작된 작품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다. 공동기획 '당신이 남은 자리' 전시는 단순히 퀼트와 섬유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물건은 사람을 기억하는 매개체'로부터 생활 속 사용되는 의자에 남은 우리들의 흔적을 되돌아보고자 기획됐다. 1960년대 후반 이탈리아에서 반디자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대량생산과 산업화에 회의를 느낀 알렉산드르 멘디니의 '푸르스트'가 대표적이다. 빅토리아 양식의 안락의자 위에 폴 시낙의 점묘법을 더한 리디자인한 작품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멘디니처럼 '당신이 남은 자리' 전시에서 섬유예술가의 손길에 탄생된 리디자인 의자와 퀼트의 공존 그리고 문신의 작품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가 개최된 제2전시관은 문신이 직접 개조된 미술관

건축물 중 일부이다. 건축의 구축 형태에 관심이 많아 그의 작품은 구가 쌓인 형태의 작품들이 남겨져 있다. 대표작품 '태양의 인간'과 '올림픽 1988'이 주로 알려져 있다. 회전계단은 건축에 능숙한 문신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며 아내이자 동양화가 무연지 최성수를 위한 관장실 공간과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회전계단을 중심으로 설치된 문신의 목조각과 섬유예술가의 작품은 마치 풍경과도 같이 어우러져 있다. 담당 학예연구사는 "이번 기획전시를 위해 제작된 리디자인 의자 작품을 통해 생활 속 물건을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우리들의 흔적이 남은 지난 의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전시는 21일부터 시작해 4월 4일까지 기간 연장에 대해 참여 작가들과 협의 중이다. 문신미술관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잠정 휴관했다가 1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재개관했다. 전시 관람은 현장에서 5인 이하의 인원 제한으로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남영명/기자

장강명 작가, 오늘 북챗콘서트서 '책 쓰기 기술' 공개

지난해 11월 '책 한번 써봅시다'를 출간한 장강명 작가가 오늘 오전 11시 인터파크 온라인 북챗콘서트에 출연해 '예비 작가를 위한 책 쓰기'의 모든 것'에 대해 들려준다.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는 장강명 작가가 작가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소설, 에세이, 논픽션과 칼럼 쓰기에 이르기까지 30가지의 실전 책 쓰기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작가는 "창작의 욕구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며 "지금 책 한번 쓰고 싶다는 마음을 몰래 품어 온 지가 1년이 넘었다면 그건 평생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쓰기가 갖고 있던 욕망을 해소할 기회이자 삶을 충만하게 한다는 장 작가는 "글을 쓴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작업이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책을 쓰는 게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요즘 사람들은 짧은 메시지를 점점 선호하게 되는

데 사람을 설득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은 짧은 메시지로는 할 수가 없다"라며 "긴 메시지, 긴 글을 담은 매체는 책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내 자신이 된지 알 수 있게 글을 쓰는 문화가 왔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장강명 작가는 책 쓰기에 영감을 주는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나만의 문체를 가질 수 있는 팁, 필사가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등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열 가지 질문과 답을 북챗콘서트를 통해 풀어낸다. 장 작가가 pick 한 추천 도서와 책 쓰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은 오늘 11시 인터파크 앱 내 '인터파크TV'와 유튜브 '공원생활'의 온라인 북챗콘서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책 한번 써봅시다' 작가 친필 사인본을 구매할 수 있으며 원고지 노트를 증정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재은/기자



대전시립교향악단, 치유와 감동의 '2021 공연 라인업'

마음의 치유를 위한 음악 백신, 대전시향이 함께 한다



희망찬新春년 새해에도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세계적인 최정상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음악을 통한 진한 감동과 환희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드리는 음악백신을 선사한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임스 저드', 전임지휘자 '류명우', 수석객원지휘자 '마티아스 바메르트'의 지휘 체제를 갖춘 대전시립교향악단은 수준 높은 클래식적 정수를 보여주었고, 여자경, 구자범, 토마스 뢰스너, 마티아스 바메르트 등의 객원지휘자와 양인모, 백주영, 양성원, 스티븐 허프, 알렉세이 블로딘, 스토리오니 트리오 등 세계적인 연주자와 협연으로 함께 한다. 정통 클래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마스터시리즈' 12회,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음악회 '디스커버리시리즈' 16회, 깊이 있고 섬세한 매력의 실내악을 선보이는 '챔버시리즈' 4회, 이야기가 있는 힐링의 시간 '마티네 토크 콘서트' 4회, 그 외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80여 회의 연주회를 준비했다. 대전시향은 연간 공연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계획해 친숙한 음악과 생소한 음악을 균형 있게 배분해 잘 만들어진 앨범을 듣는 것처럼 기획했다. 특히 제임스 저드 예술감독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매년 말러 교향곡을 연주해 왔으나,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선보이지 못했던 교향곡 제6번을 비롯해 핀란드 현대 작곡가 칼레비 아호의 삼중협주곡 한국 초연,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등이 마련됐다. 또한, 6월 25일에 선보일 '6.25 특별연주회', 어린이날 기념으로 1년에 단 한 번 미뤄왔던 아동도 연주회를 즐길 수 있는 'EQ-Up 콘서트',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과학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 연주도 예정이다. 아울러 원도심 각 구 문화원을 순회하는 '우리동네 해피클래식' 개최와 매년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보문산 숲속의 열린 음악회'를 열어 클래식 대중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 이와 함께 지역 출신 및 신진 지휘자 양성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형 오픈 리허설을 개최하며 지역 유망주 발굴을 위해 오디션을 개최하고 선발된 연주자들에게 데뷔 무대를 제공해 주는 등 시립기관으로서의 지역 예술 활성화에도 총심할 예정이다. 대전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올해 대전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다양한 음악으로 대전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고정화/기자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1만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하고 화물 전제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동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

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 운영능력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행위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욱/기자

"혼자가 아닌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위축된 골목상권 살리는데 초점 두고 다양한 사업 마련

그간 305개소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새로 조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에도 상권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인회 부재로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1~3단계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공동체 스스로 당면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골목상권 매니저를 배정해 상권분석 및 컨설팅,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해 상인회 등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조직화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현장연수, 소규모 사업화지원 등을 지원해 지역상권의 발전 주체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지역단체, 지역대학 등과의 협업할 수 있는 '자율협업 공모사업'을 병행해 상인 공동체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끝으로 3단계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상권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희망상권·노후상가활성화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명실상부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

도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019년 203개, 2020년 102개 등 총 305개의 신규 상권 공동체를 조직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1단계 신규 공동체 50개소, 2단계 공동체 성장 100개소 및 공동체 운영 150개소이다. 3단계는 2단계까지 완료한 공동체 중 공모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공모단계부터 사업계획서에 '비대면 판촉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간 상권 공동체가 없거나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체 단위 방역물품을 지원해 안심 상권을 조성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의 '스마트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제품 사진 촬영 교육, 제품 상세 온라인 페이지 기획, 디자인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고객센터, 맞춤형 컨설팅 등 상권의 특성을 살려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모두가 겪는 위기상황인 만큼, 공동체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화요소를 면밀히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포기하지 않고 생업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김천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천시는 지난 1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충섭 시장과 관련 국·소장 및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김천시 미래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항경계권과 연계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전략과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한발 앞서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항공·물류 등 신산업 육성, 관광 콘텐츠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보고가 이뤄졌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통합신공항 연계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미래 지향적인 공항경계권 계획과 지역발전 마스트플랜 수립으로 김천시 미래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음성행복페이' 발행액 300억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300억 발행·설 명절 맞이 특별 이벤트 실시

지난해 2월 출시한 음성행복페이가 출시 11개월 만에 발행액 300억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행액 200억 돌파 이후 3개월 만에 300억을 돌파한 것으로 1월 현재 음성행복페이가 하루 평균 1억원 이상 충전되고 있어 오는 6월경 발행액 500억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음성행복페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는 군민들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지역화폐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음성행복페이 이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관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음성행복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이벤트는 음성행복페이 결제 시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기간 사용한 금액에 따라 245명을 추첨해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의 당첨금을 음성행복페이로 충전해준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9일 코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음성행복페이 사용과 지역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력 회복,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감염병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행복페이는 1월 기준 일반발행 306억원, 정책발행 102억원 등 총 408억원이 발행됐고 가입자 수는 2만4천명이 넘어 음성군민의 약 20%가 사용하고 있다. 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충전 한도는 월 70만원, 연 840만원이며 이용자는 결제액의 10%를 충전금으로 돌려받는다. 발급·등록방법은 모바일 앱 '그리고'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카드 수령 후 모바일 앱 '그리고'에 등록·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농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판매대행점에 방문해 현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최민식/기자

2021 김제청년공간 E:DA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자 모집

김제청년공간 E:DA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자 10명 내외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팀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는 사업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면 가능하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24시간 개방되는 오픈형 스페이스 입주공간 지원, 촬영 스튜디오 및 회의실 등의 업무시설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 인큐베이팅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또는 온라인 홍보 인력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를 희망하는 경우 김제시·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온라인 <http://event.jbci.or.kr/> 로 접수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청년공간 E:DA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에 집중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창업 인재 발굴 육성 및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10길 44에 지상 2층 415㎡ 규모로 조성, 지난해 10월 27일 개소한 '김제청년공간 E:DA'는 지난해 11월 창업공간 입주자를 7팀 10명을 모집, 맞춤형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김현태/기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명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에실천사과·이삭아삭 시림달콤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박·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천국·뽕으로 기른 영양임당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attaslow

영양군

'미스트롯2' 김다현, 데스매치 영예의眞



TV조선 '미스트롯2'가 대망의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 3라운드'의 서막을 가동한 가운데 무대를 찢는 '전율의 엔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밤 10시 방송된 TV CHOSUN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 6회 본선 최고 시청률 29.6%, 전체 27.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 무려 6주 연속 정상과 비정상과를 포함한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 경신 광풍질주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2라운드 '1대 1 데스매치' 후반부 경연이 펼쳐지며 대이변의 소용돌이 속, 총 25명의 본선 3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져 안방극장의 격한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끌어냈고, 허찬미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통해 마이클잭슨 댄스 필살기를 꺼냈지만, 양지은이 합격을 거머쥐었다. 영지와 장태희는 이 구역 '허스키 보이' 대결을 펼쳤고, 영지는 한결 부드러운 음색으로 '케세라세라'를 열창, 듣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에 맞선 장태희는 정통 트롯의 교과서다운 무대를 자랑했고, "가장 고민한 라운드"라는 마스터들의 탄식 끝에, 영지가 본선 3차전 진출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유진과 성민지는 '집안싸움'으로 긴장감을 자아냈다. 막강 우승 후보였던 전유진은 '약속'으로 원곡자 장윤정으로부터 극찬을 얻었지만, 간드러지는 장법을 무기로 나선 성민지의 역공에 무너지고 말았다. 은가은과 김다현은 각각 발라드 색채를 벗은 '안돼요 안돼'로 완전한 트롯 장비를, 녹골이 휘는 부상을 잡아낸 혼신의 무대 '늬어서 봐'로 극찬을 들었고, 결국 김다현은 은가은을 꺾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숨은 고수' 최은비는 김의영과 맞불 작전을 감행, '창밖의 여자'로 국악으로 다진 힘 있는 성량을 뽐냈다. 하지만 감미로운 발라드 트롯의 진수를 선보인 김의영이 승리를 거뒀다. 각각 거울 퍼포먼스와 강강 퍼포먼스로 맞붙은 트윈걸스와 파스텔걸스는 트윈걸스가 10대 1의 큰 점수 차로 선전해 본선 3차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초임과 박주희는 마치 김완선과 페티김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간발의 차로 박

주희가 승리했고, 윤희와 김현정은 짜릿한 탱고 무대와 신명 나는 복고 무대로 대결을 펼친 끝, 윤희가 본선 진출권을 따내며 대미를 장식했다.

모든 '1대 1 데스매치' 무대가 끝이 나고, 마리아, 홍지윤, 허찬미, 공소원, 은가은, 한초임, 전유진, 진달래가 추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눈물을 쏟았고, 영광의 '진'은 '회룡포'로 나이를 뛰어넘은 감성을 뽐낸 초등부 김다현에게 돌아갔다. MC 김성주는 김다현에게 축하 기념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 전화를 받은 김다현은 "거짓말 아니냐"고 되물더니 이내 기쁨의 웃음을 터뜨려 모두의 미소를 자아냈다. 그리고 언택트 청중 평가단이 등장하는 대망의 '본선 3차전' 막이 올랐다. '본선 3차전'은 1라운드 '팀 매들리전', 2라운드 '팀 에이스전' 등 총 두 개의 라운드로 구성, 마스터와 언택트 청중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 최고점을 받은 팀만이 전원 준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 후보가 되는 경연 방식. 마스터들은 전국 8도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몰려든 언택트 관객 평가단의 면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윤태화를 필두로 양지은, 윤희, 전유진, 김태연이 모인 '미스 유랑단'이 본선 3차전 첫 번째 팀으로 출격했다. '북 치는 소녀'가 된 김태연은 동동 북을 울리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인트로를 선사했고, 이내 '유랑곡단'으로 변신한 여자들은 연기와 노래가 어우러진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사했다. 더불어 다섯 멤버들은 CM송으로도 유명한 '범 내려 온다'를 열창, 언택트 평가단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 역대급 킬리티를 장식한 세 번째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미스트롯2'는 스마트폰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을 통해 6회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나만의 트롯여제'를 뽑기 위한 '제 4차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한다. 응원 투표는 탈락자를 제외하고 추후 결선 점수에 적극 반영된다. '미스트롯2' 7회는 오는 28일(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라디오스타' 이봉원, 여에스더와 뜻밖의 대환장 케미

테이 X 쯤양, 상상 초월 위대한 토크로 시선 강탈



이봉원, 여에스더, 테이, 쯤양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대환장 입담과 소름 돋는 무대로 안방에 폭발적 인기를 안겼다. 이봉원은 여에스더와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소환한 듯한 뜻밖의 '환장의 티키타카'로 전 재미를 선사했고 부캐 '봉재형'으로 변신해 개그맨 클래스를 입증했다. 쯤양과 테이는 상상 초월 대사가 토크와 반전 돋는 개인기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시간 순차 예능의 화력을 더했다. '라디오스타'는 동시간대 시청률, 2019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이봉원, 여에스더, 테이, 쯤양과 함께한 '다 홀로 집에' 특집으로 꾸며졌다.

상천의 어휘력이 빛나는 마성의 입담과 함께 김구라와 찐찐케미 포텐을 터트리며 빈틈없는 재미를 선사했다. '잡뽕 사장님'으로 변신한 이봉원은 최근 부캐 '봉재형'으로 음악가의 삶을 넘보는 근황을 공개했다. 이봉원은 '놀면 뭐하니?'에서 부캐 '정봉원'으로 분했던 정재형을 패러디한 '봉재형'으로 깜짝 변신해 '순정 마초'를 부르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터. 이봉원은 "그 영상을 유재석, 김대호 PD에게 보냈더니 '너무 비슷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며 정재형과 봉재형의 듀엣 무대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또 이봉원은 부캐 봉재형으로 변신해 '순정 마초' 무대를 꾸겼다.

정재형의 디테일한 표정과 음색, 습관을 완벽하게 묘사해 '소름'과 '웃음'을 함께 부르는 역대급 싱크로율 무대를 완성했다. '잡뽕'을 절규하듯 외치는 봉재형의 모습은 '레전드 짤'의 탄생을 예고했다. '닥터데이너' 여에스더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소환한 듯한 이봉원과 뜻밖의 케미와 티키타카로 재미를 안겼다. 이봉원 아내 박미선의 입장에 빙의한 여에스더는 이봉원에 잔소리 폭격에 나서는가 하면 새 사업 아이

정재형의 디테일한 표정과 음색, 습관을 완벽하게 묘사해 '소름'과 '웃음'을 함께 부르는 역대급 싱크로율 무대를 완성했다. '잡뽕'을 절규하듯 외치는 봉재형의 모습은 '레전드 짤'의 탄생을 예고했다. '닥터데이너' 여에스더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소환한 듯한 이봉원과 뜻밖의 케미와 티키타카로 재미를 안겼다. 이봉원 아내 박미선의 입장에 빙의한 여에스더는 이봉원에 잔소리 폭격에 나서는가 하면 새 사업 아이

최만식/기자

“ 드라이브 어때? ”

'바람피면 죽는다' 치밀한 전개 X 휘몰아치는 긴장감과 공포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이 '백수정 매니저' 유준홍이 남긴 USB 속 내용을 확인하고 뺨가를 결심한 듯 남편 고준과 함께 한밤중 공동묘지로 향해 금급증을 끌어올렸다. 조여정과 고준 사이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치밀한 전개와 휘몰아치는 긴장감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13회에서는 백수정 매니저 김덕기가 숨긴 USB의 내용을 본 강여주가 남편 한우성과 함께 공동묘지로 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지난 방송에서 유준홍 매니저가 자신과 접견하는 동안 발작을 일으킨 뒤 급사하자 현행범으로 몰려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됐다. 장승철과 안세진은 우성의 자백을 받아 내려 집요하게 물어보았지만, 변호사 모드로 안정을 찾은 우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였다.



여주의 사주를 의심하는 장형사에게 "왜 자꾸 제 아내를 염오려 하시니까?"라는 말로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우성의 부탁으로 여주를 만난 손진호는 남편이 범인으로 몰려 유치장에 갇혔는데도 "죄가 없으면 금방 풀려나겠지"며 지나치게 평온한 그녀를 보며 공포를 느꼈다. 블랙워원은 매니저의 죽음과 우성의 누명을 모두 여주가 꾸민 것으로 의심했다. 과거 정혼자였던 주민재가 바람을 피워의 문사를 당했듯이 우성도 여주가 놓은 덫에 걸려든 것임을 확인했다. 우성은 여주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고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다. 여주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알레르기가 있는 우성의 몸에 두드러기가 난 이유에 주목했다. 각각 알레르기가 심한 매니저가 경찰서의 물을 마신 뒤 알레르기 쇼크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라 유추했고 정곡을 찌른 장형사와 안형사는 우성을 풀어줄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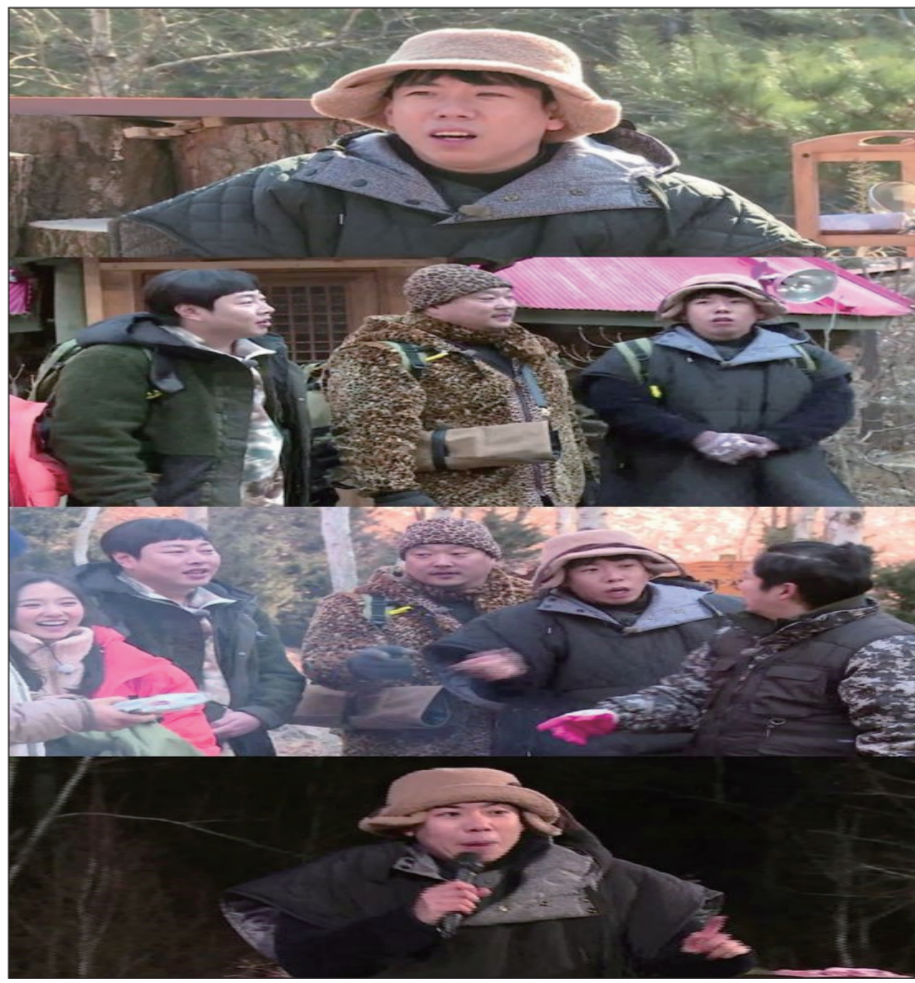
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체념했다. 그녀는 우성에게 전화했지만, 여주와 함께 있던 우성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미래는 우성에게 작별 메시지를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핏기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미래의 모습이 등장, 충격을 안겼다. 이날 '바람피면 죽는다'를 접한 시청자들은 "내일 한우성, 몸 부위 중 어디가 잘리는 거 아니냐고?", "은근 재미있는, 자꾸 보게 되는 드라마", "뻘한 스토리가 아니라 재미있는데,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는 천재 시그니처?", "뺨가 미스터리한 만화 보는 느낌~ 캐릭터가 신선하네요" 등 폭풍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타일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파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기를 선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현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재은/기자

'와일드 와일드 퀴즈' 양세찬, 첫 녹화 소감은?

제작진 만행 X 처절한 멤버들 집중력 생생 증언 기대↑

예능계 핵인싸 개그맨 양세찬이 '와일드 와일드 퀴즈' 첫 녹화를 한 뒤 제작진의 만행과 멤버들의 처절했던 상황을 폭로해 관심을 높였다. 그는 "멤버들이 퀴즈가 나올 때 진짜 눈이, '머'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웃음을 자아냈다. 오는 2월 2일 화요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와일드 와일드 퀴즈' 측은 21일 야생에서의 생존법을 제대로 익혀 큰 웃음을 선사할 양세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언택트 시대, 자발적 고립 속에서 펼쳐지는 야생 생존퀴즈 버라이어티 예능 '와와퀴'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뼈두리 산장에서 벌어지는 '맞힌 자는 먹고 틀린 자는 굶는 진정한 승자독식 예능'이다. skyTV의 버라이어티 채널 NQQ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첫 공동 제작하고 첫 동시 방송한다. 양세찬은 '와와퀴'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일단 멤버들이 너무 좋았다"며 "박세리 님과 밤곰님 님은 만나 뵈지 못했던 분들이어서 궁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퀴즈를 뜻하는 거에 비해 매우 좋아한다"는 그는 "호기심이 가득"이라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첫 촬영을 마친 소감과 출연진들과의 호흡을 묻자 예능계 핵인싸다운 반전의 대답이 나왔다. 촬영이 재미있었다면서 제작진과 멤버들에 대한 폭로를 줄줄이 한 것. 그는 "첫 촬영은 너무 재미있었고 예상 외의 반전이 있었다"며 "퀴즈를 못 맞히면 진짜 재료를 안 주더라. 컨셉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고 폭로와 칭찬을 오가는 입담으로 '역시 양세찬'다운 재기 발랄함을 뽐냈다. 또한 이수근, 박세리, 이진호, 이혜성, 밤곰님 등

멤버들과의 케미에 대해선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금방 친해진 것 같다"며 "퀴즈를 맞힐 때는 눈이, '고' 폭로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다들 집중력이 대단했다"며 "앞으로의 촬영이 기대된다. 큰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멤버들과 좋은 호흡을 맞춰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와와퀴'는 MBN을 비롯해 NQQ를 통해 만날 수 있다. skyTV는 종합 드라마-

정동희/기자